



2026. 6. 25 (목)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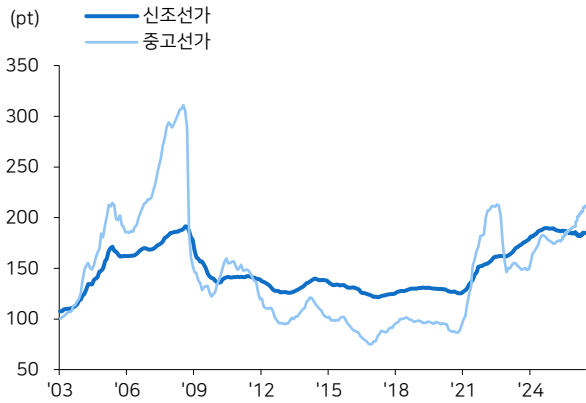
kiyeon.bae@meritz.co.kr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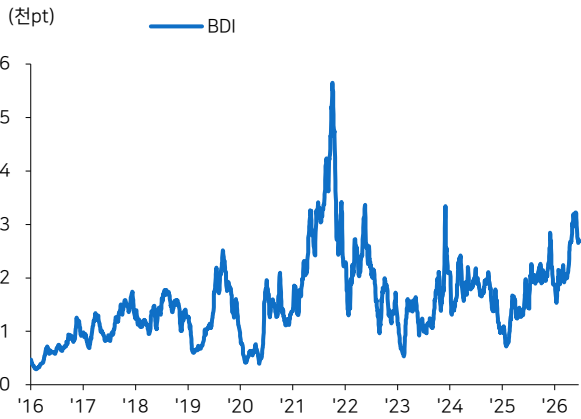
신조선가 184.9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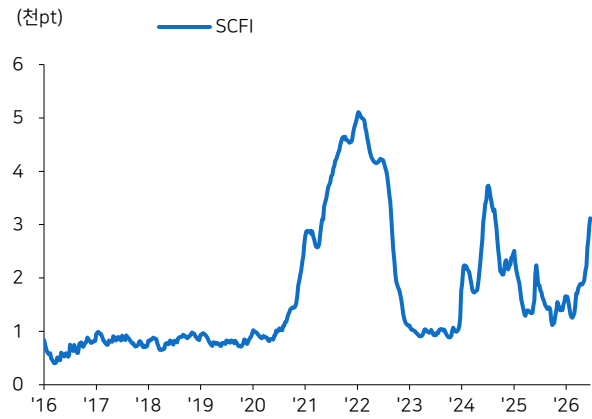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0.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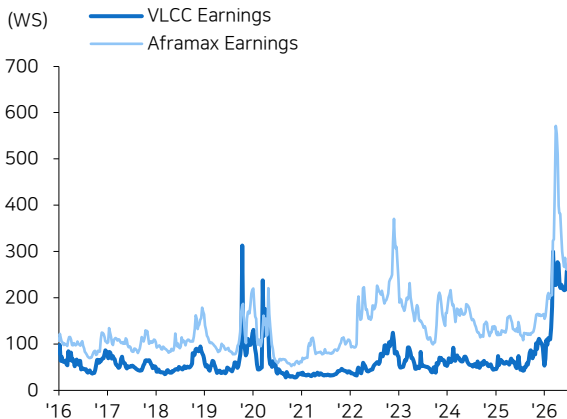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684.0p (-38.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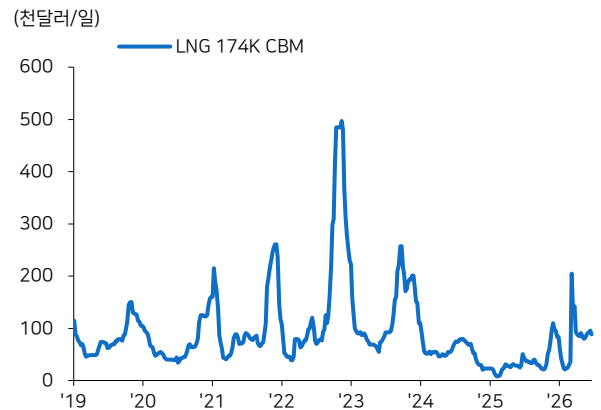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121.7(+136.5 WoW)



VLCC Spot Rate 257.9WS (+39.6p WoW)



LNG Spot 운임 88.5천달러 (-7.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캐나다 조달청장 "잠수함 수주전, '경제 혜택' 집중 검증" (연합뉴스) <https://zrr.kr/jJmtbN>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CPSP)에 대해 캐나다 국방조달청장이 최종 선정 기준으로 각 제안의 '경제적 혜택'을 집중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됨. 캐나다 정부는 이달 말, 늦어도 7월 NATO 정상회의 직전에는 공급업체를 발표할 전망으로 예상되며, 한화오션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현지 기업들과의 MOU를, TKMS는 핵심 기업과의 질적 협력과 노르웨이의 정비 시설 설계 공유 지원을 내세워 막판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해짐. 캐나다 당국은 후속 군수지원 및 정비 능력에 가장 높은 비중(50%)을 두고 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체결된 양해각서와 약속을 캐나다 경제를 위한 실질적 성과로 전환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알려짐.

한-인도 외교장관 회담...조선·방산 등 성과사업 점검 (뉴시스) <https://zrr.kr/ll1xwF>

조선 외교부 장관과 방한 중인 수브라마남 자이산카르 인도 외교장관이 24일 회담을 갖고,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성과사업 이행 현황과 국방·방산, 조선·해양, AI 등 다방면의 협력 방안을 점검했다고 보도됨. 양 장관은 포괄적경제협력협정 개선협상과 금융, 철강, 과학기술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진전 사항을 논의했으며, 특히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인도의 건설적인 역할을 확인하고 공급망 안정화 등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해짐. 또한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 안전화 재개방과 자유로운 항행 보장이 안보와 경제에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알려짐.

카타르 총리 "LNG 생산 수주내 정상 수준 회복할것" (이데일리) <https://zrr.kr/Zo7uDL>

카타르 총리의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 따르면 파손된 시설을 제외한 LNG 생산이 수주 내 정상화될 예정이며, 카타르에너지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정상화되는 즉시 운영을 재개할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됨. 알사니 총리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이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으로 보면서도, 신뢰 회복과 완전한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향후 몇 달간 원자재 부족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해짐. 또한 총리는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미-이란 간 핫라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법상 자유 항행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짐.

시도상선, HD 현대 필리핀조선소에 VLCC 4척 발주 추진 (해양통신) <https://zrr.kr/8WSht8>

시도상선이 HD현대의 필리핀 수빅조선소와 척당 약 1억 3,000만 달러 규모인 초대형 원유운반선 4척의 신조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됨. 이번 프로젝트는 시도상선이 향후 탱커 운임 강세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선대 포트폴리오를 대형 원유운반선 중심으로 다변화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전해짐. 특히 이번 계약은 과거 대형 유조선 건조 경험을 갖춘 수빅조선소가 HD현대의 체계적인 생산 관리하에 대형 탱커 건조 역량을 확보한 핵심 생산 기지로 완전히 정상화되었음을 입증하는 상징적인 사례로 알려짐.

KDDX 이어 '태국 호위함' 맞붙은 현대重-한화오션...곧 결론 전망 (MTN 뉴스) <https://zrr.kr/EPLkhU>

태국 해군이 추진하는 약 8,000억 원 규모의 4,000톤급 차세대 호위함 도입 사업에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모두 참여하여 최종 평가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됨. 이번 입찰에서 태국 해군은 함정 성능뿐만 아니라 현지 건조 비율, 기술 이전, 후속 군수지원 체계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내걸었으며, 이번 사업이 향후 최대 3조 원대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양사 모두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해짐.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 함정 사업 등 동남아 시장에서의 풍부한 수출 레퍼런스를 강조하고 있고, 한화오션은 과거 태국 해군에 인도한 함정의 운용 실적과 현지화 제안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알려짐.

Middle East conflict pushes LNG supply boom out to 2029-2030, Poten says (TradeWinds) <https://zrr.kr/kTQ06S>

Poten & Partners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LNG 공급 차질과 수요 파괴 현상이 겹치면서 글로벌 LNG 시장의 공급 과잉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2년 늦춰진 2029~2030년경으로 밀릴 전망이라고 보도됨. 2026년에는 카타르의 생산 중단 및 액화 설비 파손으로 약 4,600만 톤의 LNG 공급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며, 라스라판 시설의 복구에는 3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전해짐. 또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됨에 따라 캐나다, 모잠비크, 미국 등 대체 생산국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유럽은 시장 구조적 요인으로 재고 확충이 지연되는 반면 아시아 지역은 높은 수요 지속성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